

곡성물, 장미축제 '대박'... 매출 4배·가입자 10배 증가

지난 16~25일 특별전 누적접속자 10만3572명·신규 가입 1만721명
판매액 1억6800만원...기차마을 입장권·유럽상추·민물장어 실적 ↑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이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누적접속자 10만명 돌파', '매출 4배 증가'의 대박을 터뜨렸다. 이는 '곡성물'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특별기획전 'All Day Sale'에 대한 결산 결과 밝혀졌다. 이 기간 중 누적접속자 수는 10만3572명으로, 지난해 축제 때(1만3500여명) 보다 7배나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또 신규가입자는 10배나 늘어난 1만721명을 기록했다. 또한 매출에 있어서도 지난 같은 기간의 3800여만원 보다 4.3배 늘어난 1억68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축제 동안 곡성물에서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한 품목은 '기차마을 입장권' 9900만원으로 총매출의 60%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유럽상추', '민물장어', '유기농쌀' '백세미'

'수미갑자'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도 전년보다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는 곡성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전품목 최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All Day Sale' 기획전이 주요 소비자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All Day Sale'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비대면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곡성군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전략도 주효했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곡성물 홍보관'에서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유도 및 할인전 안내가 이뤄졌고, 온라인에서는 SNS 채널을 활용한 '#달콤미션'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곡성물에서 기차마을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전송해 현장 대기 없이 즉시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축제 운영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오픈한 곡성물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행사인 '기획전'과 신규가입을 위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획전 18회·이벤트 10회를 펼쳤다. 이같은 행사에 힘입어 곡성물 대부분의 품목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물 관계자에 따르면 '백세미'와 '유럽상추'가 꾸준한 판매고를 높이고 있으며, 계절에 따른 농특산물도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All Day Sale 기획전을 통해 곡성물이 관광 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통 전략을 지속적



곡성세계장미축제기간 중 현장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곡성물 부스...
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통 전략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승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내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5월 여수에서

2017년 이어 두번째 개최
3일간 합합 경연·북콘서트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내년 5월 여수에서 열린다. 중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3일간 열린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폐막식에서 박람회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이로써 여수시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청소년 박람회를 두 번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여수시와 여성가족부, 전라남도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전국의 기업,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등이 기획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주요 행사로는 ▲합합·댄스 경연대회 ▲북콘서트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진로 탐색·체험 ▲청



소년 정책 포럼 및 강좌 등이 있으며, 청소년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200여 개의 부스와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해양도시 여수를 다양하게 즐기고 2026여수세계박람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순사건 피해자 마음 보듬는 '치유의 길, 여순'

다음달 26일까지 주 1회 진행
노래·운동 등 정서 안정 도모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자문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내달 26일까지 주 1회 진행되며, ▲노래 치유 ▲운동 치유 ▲전통 다도 ▲한방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신체와 마음의 균형 회복을 돕는다. 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연계해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치유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봉사로 충만한 1박 2일

고흥군, 11월까지 청소년 봉사학교
청소년 공모전, 5~6월 참가자 모집

고흥군이 오는 11월까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수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리안느·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를 총 8기에 걸쳐 운영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봉사학교는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두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리적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박 2일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국 9개 학교에서 총 433명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야기로 듣는 마리안느·마



가렛 자원봉사 ▲청소년 마음이기(인성·협동심) ▲소록도 탐방을 통한 마리안느·마가렛 흔적 느끼기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청소년 희망 더하기 공모전'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전국 중고등학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우수작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등 총 7점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주자경 기자 gju@kwangju.co.kr

명품 햇 광양매실 본격 출하

올 5100여t 생산...홈쇼핑·농협 등 온·오프라인 판촉 전개

광양매실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6일 다압농협 매실선별장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도·시의원,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 등 산지 유통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개최했다. 광양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주산지다. 다른 지역에서 나는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7년에 지리적표시 제36호로 등록되고, 2008년에 광양매실산업특구로 지정된 광양매실은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저온 피해를 입은 올해 광양매실의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100여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고품질 매실산업 육성을 위해 ▲정지·전정 인력 지원 ▲동력전정기 지원 ▲장까지 생산용 씨 분리기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광양매실 수매 지원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확대를 위해 매실이 본격 출하되는 6월에는 ▲온라인 상생장터 운영 ▲TV홈쇼핑 판매지원 ▲농협 등 과 함께 수도권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상생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실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해 애써주시는 농가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홍보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광양시에서는 앞으로도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및 유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협별 농가 수매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지방정부 AI 혁신' 종합 대상

행정업무 자동화·AI 반려로봇 등 공공행정·돌봄복지 분야 높은 점수

순천시가 AI 행정 최고의 도시로 꼽혔다. 순천시는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AI 기반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사회안전, 경제문화, 공공행정, 돌봄복지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공공행정'과 '돌봄복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능형 행정업무 자동화, 스마트 CCTV·교통관제, AI 챗봇 '이루미', AI 기반 재활용 분류 시스템 등 공공행정 분야의 다양한 AI 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였

다. 또한, 돌봄복지 분야에서도 AI 반려로봇 '루미', '순천 케어볼', '순천 살림 안면 앱', '스마트 돌봄 플러그'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령층의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AI엠블런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응급치료 기반을 마련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순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AI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AI 행정을 통해 세계 속의 일류 순천, 미래도시의 표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문덕면생활개선회, 장학금 200만원

보성군 장학재단에 기탁...지역 우수 인재 양성

보성군 문덕면생활개선회가 지난 26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재)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4월 문덕면 대원사 벚꽃길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 향토 음식 판매 부스의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김애심 문덕면생활개선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담아 모았다"라며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키우고, 학업에 전념해 보성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생활개선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문덕면 생활개선회'는 농촌 여성의 잠재적 역량 발굴과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정비, 제철 농산물 반찬 나눔, 소외계층 돌봄, 전통 식문화 계승,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